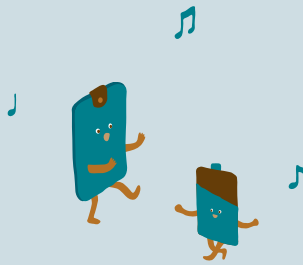


보육원 퇴소 청소년의 인생개척 자립스토리

소파가죽지갑, 열여덟 청년을 응원하다.

기획 아름다운가게
글 이수연, 최용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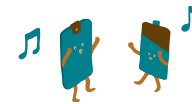
낡은 소파의 가죽이 아름다운가게 장인의 손을 거쳐 소파가죽지갑이 된 것처럼,
누군가의 후원아동이었던 아이들도 여러분의 사랑에 힘입어 멋진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보육원 퇴소 청소년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보육원 퇴소 청소년의 인생개척 자립스토리

소파가죽지갑,
열여덟 청년을
응원하다.



목차



01. 글을 시작하며

- 06 | 이야기 하나, 소파가족지갑 이야기
- 08 | 이야기 둘, 보육원 퇴소 청소년의 특별한 자립스토리

02. 자립청소년 이야기

- 12 | 1. 매일 아침, 주먹밥 400개를 만드는 남자
- 20 | 2. 엄마는 무당, 나는 배우를 꿈꿨다
- 26 | 3.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소녀

03. 보육원 퇴소 청소년 자립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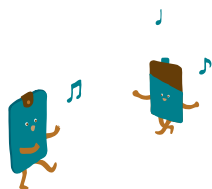
- 32 | 가벼운 주머니, 무거운 마음

04. 자립청소년 그 후

- 36 | 1. 그때 살린 딸들, 이젠 엄마가 되었습니다!
- 42 | 2. 의자가 된 선생님

48 | 05. 마치는 글

52 | 06. 작가 소개



보육원 퇴소 청소년의 인생개척 자립스토리

소파가족지갑,
열여덟청춘을
응원하다.

01

—
글을 시작하며



이야기 하나,
소파가족지갑 이야기

I was...



“저는 멋진 소파의 가족이었어요.”

아름이가 태어날 때부터 중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아름이네 가족과 함께 했지요.
아름이는 소파 위에서 점프하는 것을 제일 좋아했어요. 하늘을 나는 기분이라요.
15년의 시간 동안 거실을 지키고 있던 저를 아름이는 가족의 일부처럼 여겼어요.



아름다운가게는 쓰임을 다한 소재에, 새로운 쓰임을 부여하는 업사이클링(upcycling)을 통해 물건의 새로운 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아름다운가게

하지만 15년이 훌쩍 지나는 사이,
낡아서 군데군데 상처까지 생겨버린 건 어쩔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버려졌냐고요? 아니요!
아름이는 저에게 새로운 주인을 찾아줬어요.

낡은 소파가족만 찾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색깔에 따라 오리고 모아서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어 내는 거죠.

저는 이제 ‘소파가족지갑’이 되어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이제는 새로운 주인이 가는 곳 어디든 함께 따라가죠. 세상이 이렇게 넓은 줄 미처 몰랐어요!

이야기 들,
보육원 퇴소 청소년의
특별한 자립스토리

아름다운가게는 특별한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보육원이 아이들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은 아빠, 엄마가 되어준 보육원 선생님들과 좋은 후원자들을 만났습니다.

한 해 한 해가 지나 아이들은 만 18살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아직 교복이 더 잘 어울리는 나이지만, 이제부터는 보육원을 떠나 혼자 살아가야 합니다.
아동보호법상 보호가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지원금과 약간의 후원금이 아이가 가진 전부입니다.
월세 계약서를 혼자 쓸 법적 자격이 없는 미성년,
만 18세...

다른 아이들 보다 조금 일찍 도전을 맞이한 아이들
그 아이들이 '감사'를 말합니다.



너무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아이들이 세상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나눔의 힘입니다.

"제가 꿈을 이뤄 성악가가 된다면 보육원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쳐주고 싶어요."
"연구를 계속해서 저같이 당뇨를 앓는 사람들을 위한 치료제를 만들고 싶어요."

아이들은 그렇게 어른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를 도와줬던 그 어른들처럼 말이죠.

아름다운가게는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스토리펀딩을 통해 보육원 퇴소청소년의 자립 스토리를 연재하며 펀딩을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글을 읽고 응원 의 글을 남겨주셨고, 총 442명이 펀딩에 참여해주셨습니다.
그분들께는 소파가족으로 만든 가족소품을 보내드렸습니다.
낡은 소파의 가족이 새로운 이름을 얻고 전혀 다른 물건의 가치를 얻은 것처럼,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 이 아이들의 인생을 빛나게 만들었으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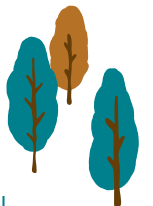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후원자였던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된 후원 아동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스토리펀딩 '소파가족지갑, 열여덟 청춘을 응원하다' (<https://storyfunding.daum.net/project/18607>)를 통해 모인 기금으로 만들어진 보육원 퇴소 청소년의 인생개척 자립스토리북입니다.

이 작은 책자는 더 많은 분들이 보육원 퇴소 청소년들을 응원하고 힘을 실어주는데 도움이 되는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후원해주셨던 여러분의 나눔이 얼마나 가치 있었는가를 증명해 줄 것입니다.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스토리펀딩 '소파가족지갑, 열여덟 청춘을 응원하다' 바로가기
(펀딩은 완료되었으며 책에 실린 스토리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파가죽지갑,
열여덟청춘을
응원하다.



1. 매일 아침, 주먹밥 400개를 만드는 남자



2. 엄마는 무당, 나는 배우를 꿈꿨다



3.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소녀

02

—
자립청소년 이야기



매일 아침, 주먹밥 400개를 만드는 남자

새벽 6시, 기태(가명·24세)가 주먹밥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빚어내는 주먹밥은 400개. 오후엔 돼지갈비 집에서 고기를 굽고 청소를 합니다.

아르바이트가 모두 끝나는 시간은 밤 9시.

하루를 마감할 시간이지만, 그때부터 기태의 2번째 하루가 시작됩니다.

또래 친구들보다 늦은 나이에 도전하는 성악과 입시준비가 바로 그것.

점심시간을 이용해 성악레슨을 받고 밤이면 수능공부에 매달리는 빠듯한 일정. 만만치 않은 레슨비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실 틈 없어도 요즘 기태는 즐겁기만 합니다.

24살 늦깎이 대학입시에 도전하게 된 데에는 남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곱 살부터 기태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여섯 살 무렵 가출한 어머니의 얼굴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운영하던 가게 폐업 후 아버지는 새벽인력시장을 전전하며 기태를 키우려 애썼지만 형편은 나날이 나빠졌고, 기태를 보육원에 맡긴 이후 술로 매일을 지새우던 아버지는 결국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아버지를 병원에서 모시고 와 함께 살 돈을 모으기 위해 기태는 취업률이 높은 공업고등학교에 진학해 용접을 배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어느 날, 갑작스레 아버지가 보육원을 찾아왔습니다. 환자복에 슬리퍼 차림. 한눈에도 병원을 무작정 나왔다는 걸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부자는 별말 없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 저녁이 두 사람이 함께 한 마지막 식사일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얼마 뒤, 아버지는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가진 것도 가족도 없이 혼자 남겨진 고등학교 2학년짜리에게 장례비가 있을 리 만무. 화장을 해 드리기 위해 아버지의 시신을 병원에 기증해야 했습니다.

조심스레 바꿨던 소망이 사라진 자리에 오롯이 혼자 남겨졌지만, 소년에겐 오래 슬퍼할 겨를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만 18살이 되면 보육원을 퇴소해야 하는 아동보호법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무섭게 보육원을 떠나 정말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졸업 후 숙식이 제공되는 일자리를 얻는 것!

고등학교 졸업 후, 기태는 거제도의 한 조선소에 취업했습니다.

주 6일 하루 평균 12시간. 온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좁은 공간을 비집고 들어가 용접을 하다 보면 목이 잠기고 손목을 다치기 일쑤인 고된 노동이었지만, 다른 선택지는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생계해결이 무엇보다 시급했기에, 숙식이 제공돼 주거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만으로 그저 좋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경기악화로 조선소 조업이 중단되면서 유일한 선택지였던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막막함이 엄습했습니다. 가장 급한 것은 살 곳을 마련하는 것. 숙식 가능한 일자리를 찾던 기태에게 누군가 말했습니다.

“왜 너 자신을 위해 살 생각을 하지 않아? 너도 꿈이 있을 것 아니야?”

꿈? 그에게 꿈이란 사치일 뿐이었습니다.

당장 하루를 버티는 것 말고 다른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은 할 수조차 없는 삶.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고민하는 호사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문득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노래’였습니다.

조선소 조업을 유일하게 쉬는 일요일에 나갔던 교회 성가대에서 좋아하는 노래를 하며 트레이드마크였던 무표정을 벗어나 웃음을 찾게 됐습니다. 성격도 밝아졌습니다. 처음으로 용기를 내, 성악을 전공하는 친구의 대학수업시간에 구경을 갔습니다. 간절한 눈빛을 읽어낸 교수님께서 수업 말미에 기태를 무대로 부르셨습니다.



유독 상처가 많은 기태의 손. 심한 몸살로 새벽 아르바이트를 마친 후 링거를 맞고 인터뷰 장소에 왔습니다. © 아름다운가게

“네 노래 좀 들어 보자.”

무슨 정신이었는지 모르지만, 혼신을 다해 노래를 불렀습니다. 난생처음 서 보는 독무대. 온통 자신에게 쏠린 시선에 떨렸지만, 설렸습니다. 희열이 차올랐습니다.

감히 제가 꿈을 꾀도 될까요?

“너 이 녀석, 계속 노래해야겠다!”

교수님은 성악선생님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자존감도 찾게 되었습니다. 성악과에 가서 좋은 발성을 본격적으로 배우고 싶은 열망도 그만큼 절실해졌습니다. 변화하고 싶고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당장 살 곳조차 없는 현실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런 제가 과연 꿈을 꾀도 될까요...?”

처음으로 묻고 싶었습니다. 인생의 이정표가 되어 줄 사람, 부모님의 빈자리가 어느 때보다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은 대신 물고기를 잡아 주길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스스로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줄 어른을 필요로 합니다.

인생의 고민을 함께 나눌 부모님이 있었다면 가르쳐 주었을 그것 말입니다.

간절함은 통한다고 했나요. 고민 끝에 찾아간 복지사 선생님의 도움으로 LH전세임대 주택 대출지원사업에 신청서를 넣었습니다. 자격제한은 보육원 퇴소 후 5년, 만 23살까지. 기태의 나이는 이미 마지노선인 만 23살.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해 마음 졸였지만, 다행히 전세자금 대출이 승인되었습니다. 아름다운가게의 지원으로 부담스럽던 이자액도 줄었습니다. 뭘 듯이 기뻐했습니다.

**비록 남들보다 더디더라도 제가 일한 대가로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저한테는 큰 의미가 있어요!**

“지금 몇 년 출발선이 늦은 건 늦은 게 아닌 것 같아요. 평생 노래할 거니까요. 멈추지 않고 열심히 나아가면 노력이 쌓이고 쌓여 꿈에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도전해 볼 기회가 주어졌으니, 나머지는 제가 노력할 몫이죠. 꼭 해내겠습니다.”

기태에게 꿈은 ‘간절함의 또 다른 말’이었습니다.

대학에 다니게 된다면 제일 먼저 무얼 하고 싶냐는 질문에 의외의 답이 돌아왔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결혼식 축하 아르바이트는 꼭 하고 싶어요!

결혼식 갈 때 마다, 축하 부르고 어머니께 인사하는 시간이 되면 같이 울어요. 어머니 머릿속에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지낸 시간들이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 기억이 너무나 소중한 거 같아서... 저한테 제일 감동적인 순간이에요. 비록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노래를 통해 소중한 순간을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한창 자신생각만 해도 모자란 나이일 텐데, 주변을 둘러보는 데 익숙합니다.

얼마 전엔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게 인근에서 중풍으로 편치 않은 몸을 이끌고 폐지를 주워 생활하시는 할머니의 리어카를 밀어드리다 울고 말았습니다.

기태를 울린 건, “고맙다...!”는 할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작고 당연한 일에 크게 고마워하시는 마음이 너무도 고마워서 할머니 손을 맞잡고 눈물을 쏟아 버렸습니다. 도움이 절실한 사람에겐 간절함의 크기만큼 고마움의 크기도 크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사랑을 넣고 고마움은 고마움을 넣습니다.

비록 첫걸음은 더디지만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기태의 내일이 기대됩니다. 인터뷰 중인 기태씨와 이수연 작가 © 아름다운가게



아이들의 자립스토리를 담다

이 글을 쓰는 저는 지난해 봄부터 가을의 초입까지 아름다운가게 모금팀에 소속해 보육원 퇴소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전화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건, 아이들의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전화통화의 한계 상 짧게나마, 갑자기 다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막막하던 시기에 생계비 지원으로 위기를 넘긴 친구의 감사편지, 자신이 자란 보육원의 사회복지사로 취업을 한 친구의 소식, 편도선 수술비용을 지원받고 완쾌한 친구의 건강한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제가 아이의 인생을 바꿨다고요?”

수화기 너머로 기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 줄 몰랐네요. 아이들 소식을 좀 더 자세히 전해주실 수 없을까요?”

아이들의 변화는 후원자님들이 무엇보다 가장 받고 싶어 하는 선물이었습니다.

그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기꺼이 아이들의 동반자가 되어준 분들의 얼굴에 환한 웃음꽃을 피우고 싶습니다.

아울러, 지금 이 순간 꿈을 향한 간절한 여정을 걷고 있는 세상의 모든 당신께...

때론 조바심 내고, 때론 지친 마음을 보듬을 따스한 미소 한 자락이 되길 바랍니다.

아이들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어쩌면 공기처럼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어야 했을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지 못했지만 아이들은 비관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곳곳하다는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씩씩함과 밝은 에너지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보육원에 있는 동생들이 퇴소할 때 자신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길 바라노라고, 마음에 차곡 차곡 담긴 사랑이 묻어난 목소리로 오늘도 기태는 다집합니다.

“이 도움이 얼마나 소중한지 늘 기억할 거예요. 좋은 분들의 도움으로 꿈을 향해 달려갈 힘을 얻었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글 | 이수연 (작가/아름다운가게 활동가)



엄마는 무당, 나는 배우를 꿈꿨다

좋은 배우란 경험 많은 사람이 아닐까 싶다. 헤어진 경험이 있어야 이별연기가 자연스럽지 않겠는가. 매 순간 다른 사람이 돼야 하는 배우에게 남을 이해하는 능력은 필수고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선 비슷한 경험을 해야 한다. 내가 아파 봐야 배역의 아픔도 볼 수 있는 법 이니까.

무성씨(가명·25세)의 경험은 대체로 슬펐다. 그는 아동양육시설(보육원)에서 자라며 많은 것을 경험했다. 하지만 무성씨는 안다. 세상엔 괴로운 이가 많고 자신은 그들과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무성씨는 마치 연기대상 수상식에서 무명과 가난이 연기 밀거름이 됐다고 고백하는 배우처럼 경험의 땅을 다져왔다.

무성씨는 배우를 꿈꾼다. 여러 해 배우가 되길 소망했지만 그를 움켜쥔 건 가난과 가족이었다.

무성씨는 배우를 꿈꾼다. 그는 낮에 모 통신사 직영점에서 요금수납업무를 한다. 밤엔 여전히 아동양육시설(보육원) 축제 무대에 서던 떨림을 잊지 못한다. 여러 해 배우가 되길 소망했지만 그를 움켜쥔 건 가난과 가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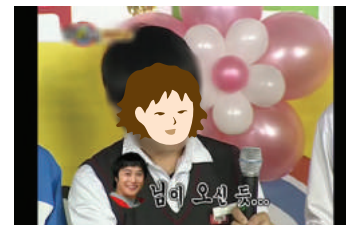
소년에게 세상은 험지였다.

3살 때부터 무성씨는 보육원에서 자랐다. 부모님의 이혼과 가난 때문이었다. 14살 때 처음 엄마를 만났다. 그 다음해 엄마는 무당이 됐다. 형은 신학교를 다니다 자살을 시도했다. 그후 사기 혐의로 재판까지 받고 엄마를 따라 무당이 됐다. 20살 때 만난 아빠는 눈물만 난다. 아빠는 자주 밥상을 뒤엎었다. 그때마다 무성씨는 집을 나와 근처 창고에서 오들오들 떨었다. 현재 그는 혼자 살고 있다.

무성씨에게 평범한 가족은 영화 속 이야기다. 기억 가장 끝 편에는 엄마를 잡은 손이 아닌, 보육원 친구들과 목욕탕에서 놀던 기억이 남아있다. 그는 “사람은 안 좋은 건 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입학 전 기억은 없어요.”라고 말했다.

보육원서 불태운 연기 열정

그림자가 길면 빛이 강한 법. 무성씨에게 어두운 과거만 있는 건 아니다. 그는 공부도 잘했고 끼도 많았다. 중학교 1학년, 연말 보육원 축제 연극을 준비한 게 시작이었다. 선생님과 친구를 보는 게 행복이었다. 20살 보육원을 나가기까지 매년 무성씨는 대사 한 줄부터 무대 소품까지 정을 쏟았다.



무성씨가 중3때 모 예능프로그램에서 보육원을 방문했었다. 평소 갖고 닦은 연기를 선보였다. 출연자였던 개그맨 이수근이 했다. “예전 날 보는 것 같다. 넌 잘될 거야.”

무성씨가 중3 때 모 예능프로그램이 보육원을 방문한적 있다. 평소 갖고 닦은 연기를 선보였는데, 개그맨 이수근이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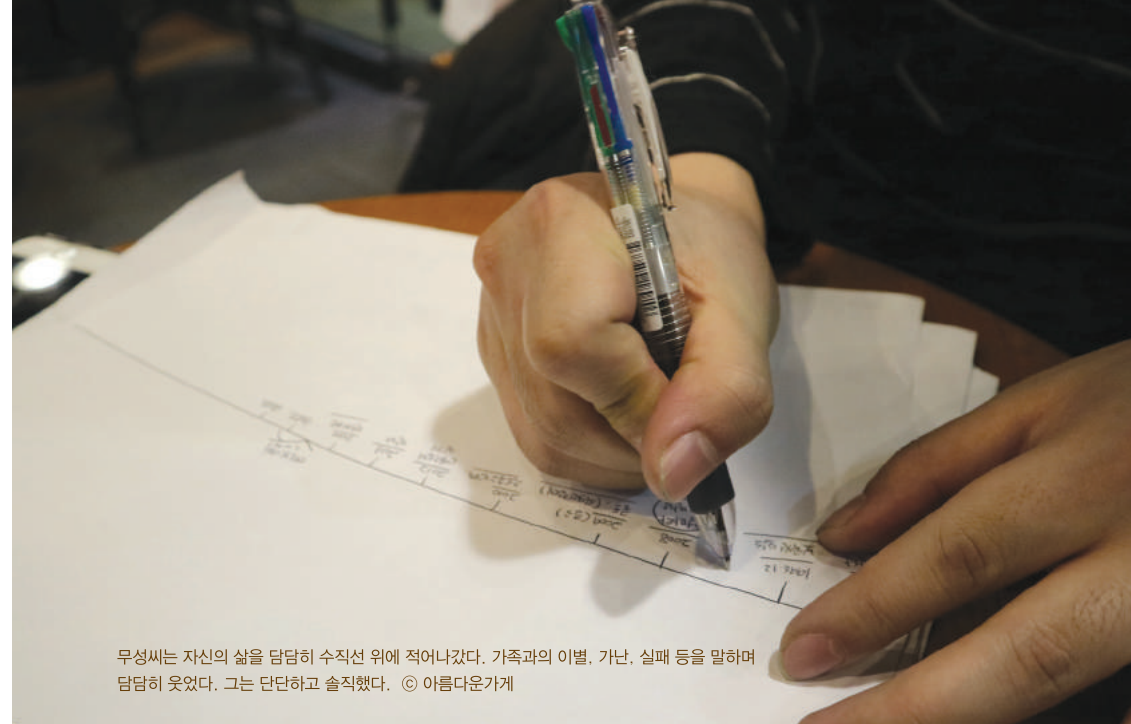
“예전 날 보는 것 같다. 넌 잘 될 거다.”

방송에 나온 뒤 학교에서 받는 주목도 무성씨에겐 기쁨이었다. 그는 ‘학교를 가니 유명해졌다. TV에서 나오는 즐거움을 알았다’고 웃었다.

무성씨는 예술고등학교에서 연기를 배우고 싶었다. 하지만 보육원 입장에서 가족 뒷바라지가 없는 중학생 무성씨를 예고에 보낸다는 것은 큰 모험이었다. 무성씨는 취업이 보장되는 공고에 진학했다. 무성씨는 ‘가끔은 그때가 아쉽다. 연기자가 될 수 있는 기회일 텐데……’라고 말끝을 흐렸다. 지방대 공연예술과에 들어갔다. 한학기만에 관뒀다. 연기가 아닌 춤을 배우는 학과였다.

스무 살부터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다.

성인이 되어 보육원을 벗어나자 용돈부터 월세까지 생계는 그의 몫이었다. 22살, 연기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 없어 다시 대학교 연극영화과 입시에 도전했다. 연기학원을 다녔다. 처음 정식으로 배운 연기였지만 매일 실력이 늘었다. 밤새 거울을 봤다. 연기학원 ‘에이스’가 되는 데 6개월도 걸리지 않았다. 학원 강사는 “(입시를 치르는 19살들 보다) 몇 년 더 살아 확실히 말을 잘하네”라고 칭찬했다. 실은 그가 견뎌온 아픔과 간절함이 언어의 깊이를 만든 것이리라.



무성씨는 자신의 삶을 담담히 수직선 위에 적어나갔다. 가족과의 이별, 가난, 실패 등을 말하며 담담히 웃었다. 그는 단단하고 솔직했다. © 아름다운가게

부조리극처럼 무너지다

하지만 월 80만원 연기학원비가 발목을 잡았다. 보육원 퇴소 후 함께 살게 된 아버지가 학원비를 대줬지만 석 달이나 밀린 걸 알게 됐다. 서울 모 대학 연기와 최종면접을 앞둔 때였다. 부조리극처럼 무성씨는 차마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포기했다.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대학입시 수시 접수비용 10만원을 위해 주말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연기에 매진했어요. 하지만 학원비가 밀렸다는 사실에 큰 좌절감이 밀려왔죠. 활발한 연기를 해야 하는데, 주눅든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제 스스로가 초라했어요.”

240만원이 부족해 그는 연기를 다시 한 번 접었다. 아무것도 하기 싫었다. 무성씨가 겪어온 삶의 질곡은 정상을 한 걸음 앞두고 그를 비탈로 내던졌다. 돈을 빌려서라도 입시를 치러야 하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생각은 무성씨에게 닿지 않았다.

파도가 밀려오자 그는 배우처럼 웃었다

“제 인생은 뭔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바닥으로 떨어진 적이 많아요. 파도처럼 올라갔다 다시 내려가는 거죠”

예고에 못 간 것도, 대학 문턱에서 미끄러진 것도 가난과 격려의 부재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에겐 든든한 마음 속 방파제가 돼야 할 가족도 온전하지 못했다.

무성씨처럼 보육원에서 자란 아동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 사망, 가난 등 어려운 환경에서 인생을 시작한다. 만 18세가 넘으면 보육원에서 자라던 아동은 성인으로 홀로 서야 한다. 이들의 대학 평균 진학률은 40%로 고교생 평균 절반수준이다. 대부분 장시간 저임금 직종으로 취업 첫 문을 연다. 무성씨도 떡볶이 집에서 튀김을 팔며 번 돈으로 밀린 연기 학원비를 냈다.

무성씨가 파도를 헤쳐올 수 있던 건 주변 손길 덕분이다.

하지만 무성씨에게 하나 둘 도움의 손길이 찾아 들고 있다. 그가 보육원을 졸업한 뒤에도 꾸준히 연락하는 보육원 사회복지사, 아름다운가게 주거비 지원이 큰 도움이 됐다. 무성씨는 “돌이켜보면 누군가 도움으로 지금껏 살았다”며 “지금 다니는 직장도 취약계층지원을 통해 취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땀 흘려 번 돈으로 통장을 만들고 차곡차곡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무성씨가 감사를 기억하는 사람이기 때문일까. 직장에서 그를 향한 칭찬은 누구보다 씩씩하고 씩씩하다는 말이다.

매일 밤 무성씨는 그간 자신을 도와준 이들을 위해 기도한다.

무성씨는 여전히 연기를 사랑한다. 그는 “평범하지 않은 경험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며 “일할 때도 연기를 배운 게 도움이 될 때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때 대학교 연극과에 진학한

친구들 소식을 보는 건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회사 차원 연극 동아리에서라도 활동하겠다는 게 첫걸음이다. 그는 “언젠가가 될지 모르지만 다시 도전하겠다”고 환하게 웃었다.

무성씨는 사랑하는 일이 있다. 동시에 직장에서 단단히 발붙일 수 있는 건 주변 응원덕분이다. 그가 타고 가는 생의 파도가 울렁일수록 우리는 방파제가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가 파도에 밀려 쓰러지려 할 때마다 등을 받쳐주는 건 우리의 몫이 아닐까.

글 | 최용준 (파이낸셜뉴스 기자)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소녀

“언니가 제 롤모델이에요!”

아동복지시설 퇴소를 앞둔 청소년을 위한 멘토링이 끝난 강익실. 방금 막 강연을 마친 은비 씨(가명, 29세)에게 교복을 입은 소녀가 상기된 표정으로 자립성공비결을 묻습니다.

성공비결? 어떤 친구이기에 롤모델로 불릴까? 인터뷰를 앞두고 궁금증이 증폭됐습니다.

대학원 졸업 후 연구원에서 유기화학을 연구하고 있는 은비 씨는 고교시절을 보육원에서 보냈습니다. 그 시기부터 지금까지 은비 씨에겐 한결같은 목표가 있습니다. 당뇨병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

명문대 석사 출신, 국책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보육원 퇴소 청소년의 롤모델... 그녀의 또 다른 호칭은 소아당뇨라 불리는 ‘1형 당뇨병 환자’입니다.



크리스마스에 쓰여진 슬픈 동화

이혼 후 아버지가 집을 떠난 건 중학교 때. 은비 씨와 어린 동생을 위해 어머니가 달동네 언덕배기에 지하 월세방을 마련했지만, 세 식구의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급식비와 수업료가 밀려 교무실에 불러가는 날이 늘더니 급기야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만큼 경제적 곤란은 커져갔고, 은비 씨는 남동생과 함께 보육원에 들어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은비 씨가 자란 보육원 아이들이 만든 크리스마스트리
© 아름다운가게

흔치 않은 고교생의 보육원 입소. 우려와 달리 보육원 식구들은 따스했습니다. 수업료 걱정 없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소녀의 슬픈 동화는 쉽사리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소녀

“밥을 먹어도 이상할 정도로 이내 허기가 졌어요. 먹는 양은 느는데 살이 자꾸 빠져 친구들이 부러워했죠. 공부하느라 피곤해서 그런 줄만 알았어요.”

보육원 입소 후 첫 신체검사를 받던 중, 양호선생님이 대학병원검사를 권했습니다.

1형 당뇨 판정. 혈당치는 이미 정상수치의 5배 넘게 치솟아 집중치료실 입원이 시급한 상태였습니다. 부모님의 이혼과 보육원입소, 급작스러운 당뇨판정까지. 연달아 닥치는 시련에 막막함이 엄습했습니다.

그때, 발길을 잡아 끄는 낯선 풍경 하나.

내분비내과 치료실 창 너머로 어린 아기가 인슐린주사를 맞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병명 역시 ‘1형 당뇨’였습니다. 현재의 의학기술로는 완치가 불가능해 일생을 인슐린주사와

약에 의존해야 하는 병. 아이가 버텨내야 할 안타까운 앞날에 한참 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간절한 소망이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당뇨병 치료제, 개발하고 싶습니다!

“저 아이를 위해, 그리고 스스로를 위해 꼭 당뇨병 치료제를 개발하고 싶습니다!”
다짐하는 목소리에 진심이 뚝뚝 묻어납니다.

청천벽력 같은 불행을 계기로 꿈을 찾아낸 것도 놀라운데, 흔들림 없이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저력은 무엇일까? 첫 장면의 여고생이 그녀에게 질문했던 비결을 되물었습니다.

“당뇨 판정을 받고 가장 먼저 10년치 계획을 세웠어요.”

전문성이 필요한 연구원의 특성에 맞춰, 대학원 진학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한 단계씩 실행해 나갔습니다. 첫 관문은 화학과 입시. 그러나 피곤하면 금세 혈당치가 올라가던 시기라 수능점수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학금 혜택이 절실한 상황에 첫 단계부터 실패가 예고된 것입니다.

“이걸 극복해 내야 뭐라도 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돌파구를 모색했습니다.”

학업을 포기하는 대신 장학혜택과 자립생활관 입소가 가능한 전문대학에 진학해 관련학과 편입준비와 아르바이트를 꾸준히 병행했습니다.

“제일 잘하는 게 있다면, 뭐든 꾸준히 하는 거예요.”

대학 4년간을 묵묵히 같은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남다른 성실함으로 분기마다 500원씩 임금인상을 받아, 졸업 무렵엔 시급 8,500원에 이를 만큼 한결같은 심지와 끈기가 장점. 하루 평균 5시간, 주말에는 오전10시부터 밤10시까지 풀타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4.0 이상의 학점을 유지했습니다.

덕분에 의화학과 편입시험에 합격했지만, 다시 등록금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장학금을 계속 받아야만 학업이 가능한 상황. 등록을 앞두고 성실함과 가능성을 높이 산 장학재단의 장학금신청이 통과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과 아름다운가게를 통해 일부 지원받은 주거 지원금에 힘입어 대학원 진학도 가능해졌습니다.

도움주신 분들의 지지가 포기하지 않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 받았는데 포기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힘들 때마다 지지해주시는 분들의 존재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미약하지만 이제 저도 조금씩이나마 환원하고 싶습니다.”

보육원 퇴소를 앞둔 청소년의 자립을 돕는 서포터 활동도 그 일환. 그녀의 경험담에 공감해 긍정적인 변화를 이뤄내는 친구들이 늘어나는 것이 큰 보람이라며 환히 웃습니다.

인터뷰 말미.

아이들의 스토리가 책으로 엮어져 나온다면 파급 효과가 있을까? 반신반의하던 마음은 어느새 확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당뇨병 완치라는 의학계의 난제를 그녀가 풀어낼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인터뷰 내내 시종일관 웃음이 떠나지 않는 은비 씨와 이수연 작가.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자가 있다고 생각 하던 사람들도 보육원 출신이라는 사실이 결코 하자가 아님을 알아주는 것 같아요. 평생을 생각했을 때, 한 시기의 어려움은 전부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한 단계씩 성장하는 순간 느낀 행복을, 고마움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그녀는 참 예뻐했습니다.
© 아름다운가게

다만, 우리는 압니다.

위기에 좌절하지 않고 꿈을 향해 묵묵히 나아가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녀의 꿈에 흔쾌히 응원을 보내준 마음들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그 값지고 귀한 마음을 우리는 희망이라 부릅니다.

이번 책자를 통해 소개된 아이들의 인생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지금 어디선가 힘든 시기를 보내는 누군가에게 분명, 시작할 수 있는 커다란 힘이 될 것입니다.

글 | 이수연 (작가/아름다운가게 활동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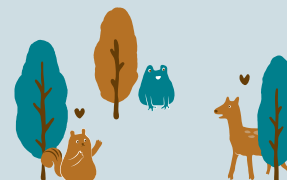


보육원 퇴소 청소년의 인생개척 자립스토리

소파가죽지갑,
열여덟청춘을
응원하다.

03

보육원 퇴소 청소년
자립 현황



위태로운 홀로서기_ 가벼운 주머니, 무거운 마음

부모 사망이나 이혼, 가족 해체 등 이유로 아동 양육시설(보육원)에서 자란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보육원을 나와야 합니다. 아동보호법이 보호 대상으로 지정한 연령은 만18세 이전의 아동이기 때문입니다. 2016년 보육원을 나와 홀로 서는 보호종료아동은 1,042명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다가오는 봄은 걱정입니다.

보육원을 벗어난 아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들이 보육원을 나서며 손에 쥐는 돈은 평균 1,000만원 남짓입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따르면 자립정착금 약 422만원, 디딤씨앗통장 약 329만원, 후원금 300만원 정도입니다.

얼핏 꽤 많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거주지부터 알아봐야 하는 스무 살에겐 월세, 전세 등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무엇보다 자립정착금은 지자체마다 지원규모가 다릅니다. 디딤씨앗 통장, 후원금 역시 개별 후원자에게 의지하고 있어 아동에 따라 격차가 생기는 상황입니다.

아이들은 대학 진학보단 곧바로 취업전선에 뛰어듭니다.

아동자립지원단 '2016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를 보면 보호종결 이후 5년 이내 1221명 아이들 중 절반은 취업 중이었습니다. 대학 재학 중인 경우는 22% 수준이었습니다. 곧바로 취업을 선택하는 보호종결아동은 불안정한 일자리와 저소득 직업을 전전합니다. 취업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27%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월평균 급여는 남성이 174만원,

여성이 163만원이었습니다. 남녀 모두 주로 서비스직에 종사합니다.

대학 진학 후에는 '주경야독'의 길을 걷습니다. 부모와 같이 살며 용돈을 받기는커녕 주거비부터 등록금, 생활비를 홀로 해결해야 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합니다. 보호종결아동 10명 중 7명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고 학업과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일이 학교 생활을 어렵게 만든다고 응답했습니다.

우울과 불안, 기댈 곳 없는 '만18세'

세상 풍파를 홀로 이겨내는 아이들은 마음을 기댈 곳이 부족합니다. 부모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관계가 좋지 않아 심정적으로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아동자립지원단 조사 결과 만 18세 이후 자립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공격성, 우울과 불안이 커집니다.



일반 아동



보호종결 아동

실제 보호종결아동이 느끼는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는 평균 아동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한국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한국 아동 행복감은 3.03점, 삶의 만족도는 6.01점이었습니다. 반면 보호종결 아동은 행복감 2.53점, 만족도는 5.07점이었습니다.

길잡이가 되어줄 멘토

보육원을 퇴소한 아동이 홀로 서는 스타트라인에서 취업과 대학은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함께 고민해줄 수 없다 보니 이들에게 멘토가 필요합니다. 등불을 든 사람처럼 말이지요. 때문에 아동자립지원단은 보고서를 통해 강조했습니다.

“보호아동이 희망하는 직종과 자립 후 실제 취업하는 형태에 차이가 있다”
“아동이 구체적인 준비할 수 있도록 진로지도와 취업지도 서비스가 지원돼야 한다”.



‘아름다운 엔젤튜터’ 수업 중인 대학생 멘토와 학생
(참고이미지) © 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보육원을 나서는 이들에게 멘토가 필요하다는 점에 착안해 사회적기업 아름다운가게와 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은 보육원 청소년과 멘토를 이어주는 ‘아름다운 엔젤튜터’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엔젤튜터’ 사업은 2017년 8월 시작해 계속 이어졌습니다. 서울지역 보육원 중고등 학생과 심사를 거쳐 선발된 대학생 멘토(엔젤튜터)가 만나 대학합격을 목표로 공부합니다. 보육원 청소년이 성인으로 홀로 설 때 대학진학이 ‘안전장치’가 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보육원을 나오는 아이들이 대학을 나와 질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멘토들이 돕습니다. 여러 사람을 만날 기회가 적은 아이들에게 대학생 멘토는 롤모델이 됩니다. 형, 누나들과 함께 꿈을 찾아가는 것이지요.

보육원을 나온 아이들은 위태로운 홀로서기에 도전합니다.

남들보다 건너야 할 고비도 더 많습니다.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칭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실은 더 많이 칭찬 받아야 합니다. 혼자서도 자기 여정을 헤쳐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 | 최용준 (파이낸셜뉴스 기자)

보육원 퇴소 청소년의 인생개척 자립스토리

소파가죽지갑,
열여덟청춘을
응원하다.

04

자립청소년 그 후



그때 살린 딸들, 이젠 엄마가 되었습니다!

자립청소년 그 후 이야기 / 조주연 박사



1. 그때 살린 딸들, 이젠 엄마가 되었습니다!

“제가 받은 신생아 수가 못해도 일개 사단은 될 거예요!”

30년 넘는 세월을 산부인과 의사로 재직한 조주연 박사. 그는 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남동생과 보육원에서 자란 박사는 새벽녘 신문배달부터 발일, 청소, 이발 보조 등을 하며 야간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전교1등 장학금을 받고 다닐 수 있었던 중학교와 달리 고등학교는 장학제도가 없어 진학을 포기해야 했지만, 신문을 돌리면서 사실과 기사를 외우도록 읽고 가로등에 비춰가며 영어 단어를 암기하던 그에게 고졸검정고시와 대학입시는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 문제는 등록금이었습니다.

“대학에 붙었는데 등록금이 없으니 참 막막했어요. 보육원 원장님이 백방으로 길을 알아보다 마감 2시간을 남기고 유한양행 유일한 회장님을 찾아갔죠. 놀라게도 누군지도 모르는 저를 위해 유일한 회장님이 선뜻 등록금을 해주셨어요. 퇴직금을 쪼개 장학금을 보내 준 분들 덕분에 무사히 의대를 졸업했고요. 그때부터 줄곧 생각했죠. 반드시 보은을 해야겠다고.”

두박이 단별신사의 특별한 소비생활

차병원 재직시절 조주연 박사의 별명은 ‘단별신사’. 써본 적이 없어 돈 쓸 줄 모르기 때문이란 구실을 대지만, 겨우내 낡은 점퍼 한 벌로 버티고 자가용 없이 두박이를 자처한 데는 남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알뜰히 모은 월급으로 보육원에 컴퓨터실을 지어주고, 보육원 아이들을 비롯해 신문배달 청소년과 경기소재 한 대학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보냈던 것.

2002년에는 1억5천여만 원을 들여 보육원 퇴소 후 갈 곳 없는 청소년들을 위한 주거시설인 ‘군산 우리집’을 마련했습니다.



은퇴 후 귀농해 발농사를 짓는 요즘도 틈틈이 유튜브 강좌를 보며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는 조주연 박사 © 아름다운가게

이젠 제가 도울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보육원 출신으로 신문배달을 하며 야간 학교에 다니던 제가 산부인과 의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격려하고 도와준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으니 이젠 제가 도울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제80회 어린이날 기념 아동복지유공자 포상 전수식에서 받은 대통령표창. 축하인사를 건네자 손사래부터 칩니다. “의사는 돈을 잘 버는 직업이잖아요. 적은 월급을 쪼개 남을 돕는 분들이 진짜 대단하죠.” © 아름다운가게



현재 2곳의 보육원·퇴소청소년 자립지원 테마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아름다운가게 매장풍경 © 아름다운가게

작은 씨앗이 이뤄낸 커다란 변화

그저 보은을 했을 뿐이라고 박사는 말하지만, 그 파급효과는 컸습니다.

아름다운가게가 보육원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사업에 뛰어든 것 역시 조주연 박사 덕분. 그가 후원한 ‘군산 우리집’에 관한 기사를 읽고 감동받은 광성희 교수가 보육원 퇴소 청소년을 돕는 테마매장 설립을 위한 씨앗기금을 마련한 데서 출발했습니다.



“유일한 회장님이 박사님을 돕고 박사님이 다시 여러 아이를 도우셨잖아요. 한 사람의 도움이 가져온 영향이 이토록 크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뜻 깊은 고민을 나눈 광성희 교수와 조주연 박사 © 아름다운가게

시대가 달라진 만큼 아이들에 대한 시선도 달라지기 바랍니다.

현재 군산 우리집은 오래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하고 주변 여건도 달라져 얼마 전부터 문을 닫은 상태. 아이들의 자립에 지속적인 도움이 될 새로운 쓰임새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거 남아선호가 심했던 시절엔 성별을 감별해 아들만 낳으려고 찾아오는 부인들이 많았어요. 저는 성별을 안 가려져 됐어요. 지금 보세요. 시대가 바뀌어 이젠 딸이 귀하잖아요. 그때 살린 딸들이 이제는 엄마들이 되었답니다. 이렇게 세상의 기준은 끊임없이 바뀌죠. 착한 원칙을 바로 세운 다음엔 세부적인 부분은 현실을 반영해야 해요. 저희 시대 기준을 요즘 아이들에게 적용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시선을 고려해야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걸 찾을 수 있고, 돕는 사람도 보람 있지 않겠어요?”

“당장은 혼자인 것 같지만, 혼자인 사람은 없어요!”

이제 막 보육원을 나서 세상에 발을 내딛는 아이들을 위해, 조주연 박사가 삶의 지혜가 담긴 진심을 전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친구들, 동료들이 있고 언젠가 가정도 이루게 될 거예요. 사람이 국영수 지식이 부족해 불행해지는 것보다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갈등을 극복하는 방법을 몰라 매일의 불행을 낳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른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보육원에 들어가게 되는 아이들도 조금은 줄어든 거라고 생각해요. 가정이 건강하다면,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이별을 제외하고 소통 부재에서 오는 이별은 줄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모든 삶은 가치가 있다는 걸 기억해 주었으면 해요.

“의사에게서 성공한 면만 보지만 사실 뜻대로 안 되는 일과 매일 부딪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생명이 죽고 사는 일이 인간의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때마다 삶에 대해 숙연해집니다. 당장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스스로 삶을 가치 있게 여기고 보람 있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퇴직 후 시간을 쪼개 배운 악기 실력은 어느새 수준급.
연주를 부탁하자 멋들어진 색소폰 선율이 들려옵니다.
© 아름다운가게



그런 생각이 스칩니다.

만약 박사가 산부인과 의사가 되지 않았더라면...?

만약 박사가 의대에 입학하도록 조언하고 도와준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박사가 산부인과 의사가 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박사가 의대에 입학하도록 도와준 사람들이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작하며 저희는 ‘즐거운 만약’을 희망하였습니다.

어른들이 믿어주고 지지해 주는 만큼 아이들은 부쩍 자라니까요. 그 즐거운 변화가 아이들을 위한 후원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또 아이들과 고민을 함께 나누는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내온 인사에 실어,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글 | 이수연 (작가/아름다운가게 활동가)

의자가 된 선생님

자립청소년 그 후 이야기 / 박설미 사회복지사

소년원 접견실로 가는 길은 익숙하다. 하지만 교도소라니.

박설미 사회복지사(여·37)는 A씨(22)의 일을 생각하면 여전히 마음이 떨린다. 이달 교도소를 출소하는 A씨는 특수절도로 1년 반 징역을 살았다. 박씨는 A씨를 위한 긴급 생계비지원을 알아보고 있다. 박씨 표현을 빌리면 A씨는 보육원에서 자신이 키운 아이다. “아이가 나와서 어떤 길을 갈까, 뭘 해야 할까” 고민이 깊다.

A씨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부모를 찾으려고 보육원을 가출했다. 어렵게 찾은 부모는 그가 기대하던 사람이 아니었다. 방향 끝에 찜질방에서 잠든 사람 휴대폰을 훔쳤다. 설미씨 마음에 대못이 박혔다.

설미씨는 “때론 잠이 오지 않는다”며 “검은 천장에 보육원을 나간 아이들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몇 년 만에 “선생님이 생각났다”고 연락한 아이 목소리를 들으면 반가우면서 어지럽다. 더 살피보지 못한 후회. 혹여 힘들진 않을까 하는 마음. 죄책감이다. 사랑이다. 아이들을 위한 의자다.

용돈도, 물건도 부족하게 큰 아이들

설미씨는 2004년 처음 보육원에서 발을 디뎠다. 대학 막 졸업한 24살이었다. 그는 보육원에서 남자 반을 맡아 한 집에서 12명과 같이 살았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나이도 성격도 마음도 모두 달랐다. 박씨는 “처음엔 마냥 즐겁고 열정적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책임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혼자 십여 명을 돌보다보니 몇몇 아이와 한 번도 대화를 못하고 넘어간 날도 있다. 경제적으로 부족한 점이 아이 자존감을 짓누르는 걸 지켜보는 게 힘들었다. 설미씨는 “보육원 아이들은 자기 물건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며 “작은 물건을 갖고도 싸운다. 개인공간이 없어 갈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핸드폰을 사줄 수 없거나 용돈을 주지 못할 때면 학교서 만나는 다른 애들을 마냥 부러워할까 봐 걱정됐다”고 전했다.

자립전담요원, 부모와 떨어진 아이의 미래를 책임지는 일이에요.

현재 설미씨는 자립전담요원으로 일한다. 그녀의 어깨는 늘 무겁다. 부모와 떨어진 아이 미래를 책임진다는 생각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머리를 쓰다듬어주던 아이들이 건강한 어른으로 자라는 보람이 크다. 자립전담요원은 만 18세 성인이 되면 보육원을 나가는 아이의 주거문제부터 진로상담까지 아이들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돕는다.

자립전담요원은 보육원마다 최소 1명씩 배치된다. 정기적으로 아이들을 만나 상황을 확인하는 일도 하지만 주거문제나 교육 또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도 그 역할이다.

자립전담요원은 퇴소 후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접점이다. 아름다운가게 같은 보육원 퇴소 청소년 지원사업을 하는 민간단체도 자립전담요원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찾아 기금을 집행한다. 어찌 보면 아이들에게 친부모나 가족보다 더 믿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어른일 수도 있다.

법적으로는 퇴소 후 5년까지 아이들을 돌보면 된다. 하지만 설미씨와 끈끈한 관계로 맺어진 아이들은 그 이상의 시간을 함께 한다. 다만, 연락이 닿지 않는 아이, 연락을 거부하는 아이들이 더 마음에 씹쓸히 남는다.

보육원을 나간 아이들은 성인이다. 하지만 나이는 찻어도 일상에서 조언을 구할 부모와 어른이 없다 보니 사회에서 겪는 크고 작은 일에 찢찢맨다. 설미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다 겪는 사소한 갈등도 아이를 놀라게 한다”며 “아이들이 ‘선생님 이럴 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하고 묻는 고민을 주로 들어준다”고 말했다.

자립전담요원으로 일하며 느끼는 건 이제 막 성인이 된 아이의 불안이다. 모든 청년들이 그렇겠지만 보육원 출신 아이들이 만나는 세상은 더 거칠다. 그는 “아이들 중에 자기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지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다”며 “열등감, 외로움을 쓰다듬어 주려 한다”고 말했다.

부모의 빈자리, 의자가 되어주는 선생님

설미씨가 13년간 보육원에서 느낀 건 부모 빈자리가 무척 크다는 점이다. 부모가 채워야 아이 마음 속 공간은 사랑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 때문에 그는 “(보육원에서 자라는 아이 감정을) 저는 손톱만큼도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단지 머리로 이해할 뿐이죠”라고 긴 숨을 쉬었다. 가끔 그는 아이들에게 “혹시라도 너한테 실수하거나 상처를 줬다면 용서 해줘” 라고 문자를 보낸다. 혹여 자신도 모르게 그런 상처를 줬을까 봐서다.

설미씨는 아이들이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었다”고 떠올릴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묵묵히 뒤를 받쳐주는 사람 말이다. 그는 아이들을 만난 이후 여태 핸드폰 번호를 한 번도 바꾼 적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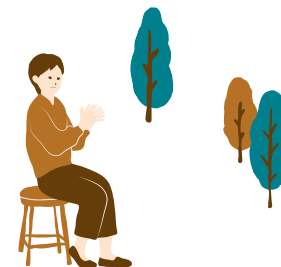
이달 교도소를 출소하는 A씨가 1년 6개월 전 재판정에서 판사에게 말했다. A씨를 위해 법정 방청석에 들어선 사람은 설미씨 뿐이었다. 판사는 A에게 마지막으로 할말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저를 보육원에서 키워주신 선생님이 와계신 데 너무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

설미씨는 의자에 앉아 눈물만 흘렸다. 지금도 흘린다. 아이들의 의자였고 의자일 것이다.

* 만 18살이 넘어 보육원에서 퇴소한 아이들을 관리하는 사회복지사가 보육원마다 최소 1명 일하고 있다. 이름하여 ‘자립전담요원’이다. 이들의 역할은 퇴소 후 아이들의 자립 현황을 체크하고 정부 및 민간의 지원시스템을 연결해 주는 일이다. 하지만 이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아이들과의 신뢰를 쌓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믿을만한 어른이 되는 것. 그것은 특히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는 쌓기 어려운 신뢰이다. 마음이 여린 아이들. 상처가 많은 아이들을 챙기는 것은 어느 부모의 역할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아름다운가게는 아동 복지 현장에서 자신에게 요구되는 직업적 역량 이상으로 아이들을 지지하고 사랑하는 자립전담요원을 만나고 있다.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아이들의 자립을 응원하는 선생님들께 응원과 지지를 보낸다.

글 | 최용준 (파이낸셜뉴스 기자)



소파가죽지갑,
열여덟청춘을
응원하다.



05

—
마치는 글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는 2010년 서울시 관악구 봉천역 인근에 세워진 ‘아름다운가게 관악자명점’의 매장수익금으로 인근 지역 보육원 퇴소 청소년의 자립 지원비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서울 사당동에 추가로 세워진 ‘아름다운가게 남성역점’의 수익금과 개인 및 단체의 후원금까지 더해져, 서울 전역 보육원 퇴소 청소년을 위한 자립기금을 조성하여 운영 중입니다.

아름다운가게는 정부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 중, 퇴소 청소년들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느끼는 주거자립 및 교육·취업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원 퇴소 청소년의 자립능력이 대학진학률과 관련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2017년부터 ‘아름다운 엔젤튜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육원의 중·고등 학생과 대학생을 1대 1로 매치하여 학업 및 진로 멘토링을 진행하게 되지요. 대학생 멘토가 주2회 직접 보육원을 방문하여 아이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연계하여 진로에 대한 멘토링을 실시합니다. 현재 서울지역 50팀이 멘토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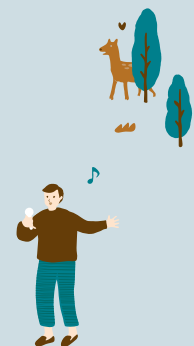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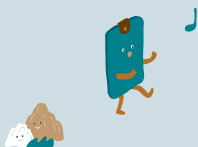
이 나눔 사업을 하며 아름다운가게는 더욱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도 우리 스스로의 결정이라기 보다는 아름다운가게 관악자명점 씨앗기부자 (곽성희

명예점장)의 제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기부자들이 후원을 시작하며 하셨던 말씀이, ‘아 정말 이 문제에 관심이 많았어요. 아름다운가게가 이 일을 하고 있다니 반갑네요.’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거나 돕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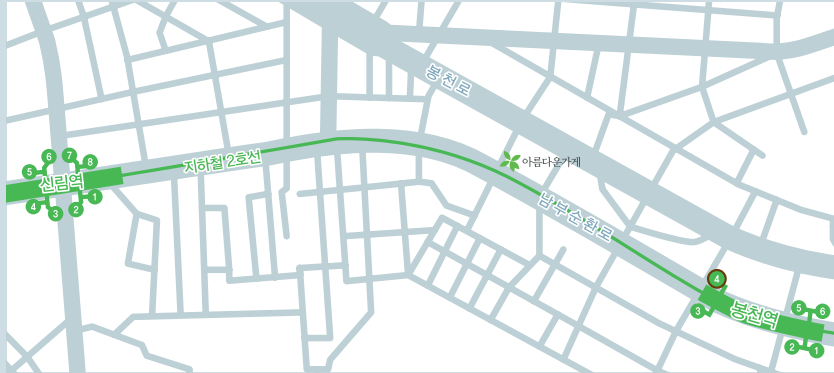
여러분의 아이들에 대한 관심, 사랑 그리고 지지를 받은 아이들의 ‘감사’를 후원자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돕는 대상인 그 보육원 퇴소 청소년들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자기의 삶을 당당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부모의 도움없이 자립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1달 반 정도 진행된 ‘스토리펀딩’을 통해 모인 기금으로 이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 그동안 아이들의 자립의 여정을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약 지금 처음으로 이 아이들의 상황을 접하셨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아이들을 돕는 것은 결코 망설일 일이 아닙니다.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우리 사는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일입니다.

2018월 5월
아름다운가게 드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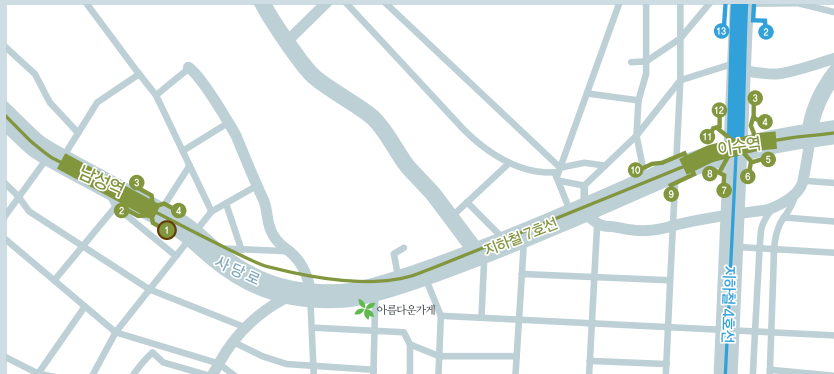


아름다운가게 관악자명점



지하철 2호선 봉천역 4번 출구에서 신림역 방향으로 도보 5분
전화 02-885-5004 | 주소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79 1층

아름다운가게 남성역점



지하철 7호선 남성역 1번 출구에서 이수역 방향으로 도보 5분
전화 02-521-7094 | 주소 서울 동작구 사당로 250 (사당동, 마립빌딩) 1층

보육원 퇴소 청소년의 인생개척 지원스토리

소파가죽지갑,
열여덟청춘을
응원하다.

06

작가소개



작가소개



이수연

드라마 작가(국권침탈 100년
특별기획 '자유인 이회영', KBS) /
소설가 / 아름다운가게 활동가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일상에서 무심코, 당연하게 지나치던 것들, 매일 스쳐 지나는 간판
이라든가 습관적으로 쓰던 단어가 평소와는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순간 말이죠.

가장 흔한 인사말. 안.녕.하.세.요!

별 뜻 없이 내뱉던 다섯 글자가 지난해 봄 갑자기 크게 다가왔습니다.
아름다운가게 전화모금캠페인을 통해 후원자들과 처음 만나던 날,
첫 번째 "안녕하세요."를 입 밖으로 내놓기까지 별의별 걱정이 다
들었습니다. 바쁜 시간이라 짜증내시면 어쩌지, 보이스피싱으로 의심
받으면 어쩌지....

수많은 걱정 와중에 놀라웠던 건, 우려와 달리 많은 분들이 전화를
받겨 주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흔쾌히 후원 약속을 해주는 분도
계셨고, 당장의 약속은 아니지만 꼼꼼히 묻고 고민해주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오히려 미안해하기도 하셨습
니다.

마주 "안녕하세요!" 반갑게 맞이해주는 인사, 아이들을 향한 진심
어린 고민이 담긴 목소리를 들으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분들이, "아이들의 내일을 함께 응원
하자!"고 먼저 이야기해주는 이를 기다리고 계셨는지도 모르겠다고.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계실 든든한 동반자님들께 기운찬 소식을,
아이들이 전하는 선물을 함께 나누고 싶어 스토리펀딩을 통해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덧글마다 멋진 진솔한 마음에 겨우내 따스했습니다.

나누고자 시작한 일인데, 오히려 힘을 얻고 맙니다.

다가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에게, "안녕하세요!"의 매직을 전하고 싶습니다.

먼저 다가와주는 이가 있다는 건,

어떤 우왕청심환보다도 값비싼 부적보다도 든든한 힘이 될 테니까요.
우리 이 길을 함께 걸어요.

blingblingdays@naver.com



최용준

파이낸셜뉴스 기자

2017년 처음 기자가 돼 보육원 퇴소 청소년 문제를 취재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울타리가 되는 글을 쓰려고 노력합니다.
아름다운가게 스토리펀딩에 참여했습니다.

junjun@fnnews.com



(재)아름다운가게 모금기획개발팀

기부자를 만나고 공익사업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일을 맡고 있는 팀입니다. 기부자와 수혜
대상을 연결하는 중간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원 퇴소 청소년을 돕는 정기기부자를
모집하던 중 기사화된 몇 건의 기부금 불법 유용사건들로 마음의 상처를 받은 기부자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기부자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위로와 격려는 무엇일지 고민하던 차에
스토리펀딩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나눔 덕분에 힘들지만 씩씩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보육원 퇴소 청소년'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스토리펀딩을 통해
보내주신 많은 응원 덕분에 이 책자가 나왔습니다. 아름다운가게의 기부자 여러분들께 이
스토리북을 전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give@beautifulstore.org / 기부문의 : 02-725-8080





아름다운가게

발행인 홍명희 | 발행일 2018년 5월 15일 | 발행처 (재)아름다운가게 |
기획·편집 아름다운가게 모금기획개발팀 | 디자인 황수연 |
주소 04634)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34 | 기부문의 02-725-8080 |
기증 및 자원활동 문의 1577-1113 | 웹사이트 www.beautifulstore.org

ISBN 979-11-961880-6-1 비매품



9 791196 188061